

〈일반논문〉

독립운동가 羅容均의 생애와 민족운동*

김 주 용 **

〈목차〉

- I. 머리말
- II. 가계와 성장
- III. 일본 유학과 2.8독립운동
- IV. 상해 망명과 활동
 - 1. 상해 망명과 임시의정원 활동
 - 2. 원동민족혁명자대표회 참가와 국민대표회의 준비
- V. 영국유학과 귀국 후 활동
- VI. 맺음말

[국문초록]

백봉 나용균의 생애는 한국 근현대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는 전북 정읍에서 출생하여 유년 시절 전통 교육을 받았으며, 1910년대 중반 일본으로 유학하여 새로운 환경의 근대교육과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를 거쳤다. 그는 일본 유학 시기 민족의 공동체 복원과 독립을 위해 1919년 2.8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제국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 1919년 7월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부교수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나용균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에도 참가하였다. 나아가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방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대표회의 준비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상해에서의 활동을 뒤로 하고 영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1923년 런던대학교에 입학한 후 1929년 귀국하기까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였다. 귀국 후 그는 식민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에서 농민들의 자력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용균은 전남 함평지역에서 간척지를 개간하는 등 생활실태의 변화를 꾀하였으며, 해방 때까지 일제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회유되지 않고 민족적 자존감을 지켰다.

□ 주제어

나용균, 2.8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국민대표회의, 자력생활

I. 머리말

1984년 7월 10일 오전 10시 국립극장에서 백봉 나용균 선생 사회장이 거행되었다. 장례위원장인 이재영이 式辭를 하고 유족헌화와 분향이 있었다. 그 뒤로 집행위원장 이종찬이 백봉 나용균의 약력을 보고하였으며, 당시 민한당 총재였던 유치송과 국민당 총재 김종철이 조사를 하였다.¹⁾ 백

1) 「자료 백봉 나용균 선생 장례식」(미발간). 이 글을 작성하는 데 나용균의 4남 나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와 정읍 거주 나종석 님의 도움이 컸다. 지면을 빌어 두 분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봉 나용균은 해방 이후 국회의원,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정치인이었지만 그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기관인 국회에서 가장 품격 있는 국회의원에게 나용균의 국회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의 호를 딴 백봉상을 수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아는 이도 많지 않다.²⁾

현재 전북 정읍시 영원면 운학 2길 초입에는 나용균 생가와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2006년 9월 등록문화재 제276호로 등록되었다. 정확한 문화재 등록명은 '정읍 나용균 생가 및 사당'이다.³⁾ 이 문화재 설명문은 다음과 같다.

이 가옥은 일제강점기에 민족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의회 정치 지도자로서 나라 발전에 공헌한 나용균의 생가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현재 안채는 주초석 일부만이 남아 있고 사랑채, 문간채, 고방이 보존되어 있으며, 생가 가까운 곳에 사당이 있다.⁴⁾

전북 정읍 출신의 독립운동가 나용균은 1917년 도쿄 유학시절(와세다대)부터 한국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8 독립선언의 주역으로 참여한 후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발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경절에 관

2) 백봉상은 1990년에 국회의원 가운데 품위와 품격으로 입법 활동에 전념한 이에게 주는 의미 있는 상으로 제정되었다..

3) 나용균 생가에 대해서는 2010년 문화재청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재청에서 근대 건축물에 대한 본격적인 실측 조사를 시행하면서 전북 정읍 지역 나용균 생가 및 사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조사보고서는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홍승재 교수가 조사 책임자로 나용균의 생애 및 건축물 구조의 연혁과 특징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4) 정읍 나용균 생가와 사당 표지판 설명문(전북 정읍시 영원면 운학 2길 14-6).

한 법령은 오늘날 3.1절의 기원이 되었다.⁵⁾ 제정 당시 ‘독립선언기념일’이 정식명칭이었던 국경절이 오늘날 3.1절이다. 즉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 3.1운동의 정신을 국경절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22년 독립운동세력의 대통합 노력의 상징이었던 국민대표회의에서도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해방 때까지 지속된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⁶⁾

이 연구는 그의 생애를 복원하고 민주공화제를 주창했던 그의 활동을 분석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용균의 생애 가운데 해방 전 독립운동시기를 범위로 설정하였다. 한 역사적 인간의 전 생애를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독립운동가의 면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먼저 나용균의 가문과 가계를 살폈다. 그리고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시절 학업현황 및 2.8 독립선언 참여 시기, 나아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시기 및 국제사회와 연대 활동을 통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시기로 나누어 나용균의 생애와 활동을 조명하고자 했다. 다만 영국 유학과 귀국 후 해방까지의 활동은 자료 등의 제약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5) 1919년 12월 임시정부에서는 국경절에 관한 국무회의 결정이 있었다. 물론 이 때부터 나용균이 관여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걸돌고 있는 국경절을 확정된 것은 나용균의 의견이었다. 임시정부의 선양활동과 순국선열기념일에 관한 연구는 김영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선양활동과 순국선열기념일 제정」,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1, 2018 참조.

6) 지금까지 나용균에 대한 연구는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전라북도 인물전 나용균 부분이 최초가 아닌가 한다. 다만 이 글은 지극히 소략하며 나용균의 독립운동 역시 2.8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으며, 그 외 활동은 거의 서술되지 않았다. 심지어 나용균이 해방 때까지 국외에서 생활한 것으로 묘사하였다(전라북도, 『전북학연구』 3, 1997, 466~468쪽).

II. 가계와 성장

백봉 나용균은 1895년 11월 25일 전북 정읍군 영원면 운학리에서 부친 羅燾珍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⁷⁾ 나용균의 8대조부인 昌大⁸⁾ 때부터는 현재 전북 김제시 죽산면 내재리에서 세거하였다. 그리고 7대조 得素, 6대조 命選, 5대조 常徽 역시 내재리에서 거주하였다. 그 뒤 1800년대 초반 그의 증조부 羅性燮이 나용균의 생가 및 사당이 자리한 현재의 정읍시 영원면 운학리⁹⁾에 터를 잡고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여겨진다.¹⁰⁾ 그의 선조들은 조선시대 뛰어난 학식을 지녔지만 관직에 많이 진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나용균 생가에서 도보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에 전봉준의 고택이 자리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은 어린 시절 나용균의 조부인 羅正集에게 충애를 받으면서 나씨 서당에서 공부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나정집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내응하였다는 의심을 받

7) 나용균의 생년월일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 「나무위키」에서는 1896년 2월 25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오류이다. 나용균의 자필이력서에는 단기 4228년 즉 1895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외에도 1896년 1월 8일은 양력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 학적부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용균의 생년도 1896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8) 8대조 창대는 김제의 효자로 『승정원일기』로 기록될 정도였다(『승정원일기』 1525책, 정조7년(1783) 1월 23일 을묘).

9)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고부군 북부면 운학동이 현재 정읍군 영원면 운학리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10) 『나주나씨 대동보』 2권, 113쪽 참조. 정읍시 영원면에는 현재 효창공원에 모셔져 있는 3의사 가운데 한명인 백정기 의사의 고택과 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다. 백정기 의사는 1896년생으로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이 정읍으로 이사하여 청소년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나용균과 1살 차이지만 함께 활동했던 역사적 흔적은 없는 것 같다.

고 전라감영으로 불려가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¹¹⁾

나용균의 아버지 나도진은 참봉 벼슬을 지냈으며, 품성이 깨끗하고 학문적 재능이 뛰어났다고 한다.¹²⁾ 뿐만 아니라 그는 효자로서도 소문이 자자하였다. 또한 나도진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향리의 어려운 자들에게 분배하여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춘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이러한 나도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운학동 마을 주민들이 기념비를 건립하였다.¹³⁾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里有仁人 持心誠敏(마을에 어진이 계시니, 마음가짐이 성심스럽고 공경스러운 분이라)

羅公燾珍 處處美善(나도진(羅燾珍) 공이 그분으로, 처결하시는 일마다 아름답고 선하도다)

所近孝隣 飢我窮我(가까이 있는 이들을 애달피 여기시니,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이다)

先被其澤 輒施恩德(예전에도 그 혜택을 입었거늘, 다시 또 은덕을 베푸시는 구나)

除恤烟役 撫之救之(연호잡역(煙戶雜役)을 대신 갚아 주시며, 위무하고 구원 해주셨다)

廿年于茲 感之仰之(20년을 이리 하셨으니, 감읍하고 우러러 볼 뿐이네)

四隣活佛 一片刻石(이웃에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니, 한 조각 비석을 새기노라)

捨里福星 永世不忘(마을을 한데 거두심이 하늘의 복덕성(福德星) 같으니,

11) 『나주나씨 대동보』 2권, 113쪽.

12) 나도진 때 많은 부가 축적되었으며, 2010년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나용균생가 실측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가는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 부속채 등 여러 건물을 갖추었으며, 그 시기는 19세기말 또는 20세기 초로 평가하였다(문화재청, 『정읍 나용균생가 및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0, 35쪽).

13)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10일, 「본리나도진사일시가 소이성효지인으로」.

영원토록 잊히지 않을 것이라)

고부 북부면 운학동 동중 강재선 등 고백¹⁴⁾

또한 나도진은 1941년 『나주나씨족보』 전 10권을 책임 편찬하였다.¹⁵⁾ 부유한 경제상황의 토대 위에서 그는 슬하에 8형제를 두었다. 첫째 鴻均(1886~1984)은 일본 明治大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1930년대 운수업에 종사하였다.¹⁶⁾ 둘째 澤均(1893~1933)은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셋째 명균(1898~1994)은 숙부 燾玟에게 입양되었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 정외과를 졸업하였으며, 해방 이후 한국마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¹⁷⁾ 다섯째 八均(1900~1950)은 일본 미술대학을 졸업하였다.¹⁸⁾ 그리고 1930년대 정읍에서 큰 형과 함께 운수업에 종사하였다.¹⁹⁾ 여섯째 宰均(1905~1970)은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을 졸업하고 상업계에 발을 디뎠다.²⁰⁾ 재균은 큰 형 흥균과 함께 정읍운수회사를 운영하기

14) 위와 같음. 위의 공덕비를 4언 절구의 한시로 좀더 명확하게 번역 정리해준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의 이용범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15) 나도진 편, 『나주나씨족보』 1-10, 1941. 나용균은 선친 나도진의 유지를 이어받아 1950년대 나주나씨 족보를 재정리하였다(나용균 편, 『나주나씨세고』, 1957).

16) 『나주나씨 대동보』 7권, 95쪽; 『매일신보』 1935년 5월 8일, 「정읍에 새로히 운수주식사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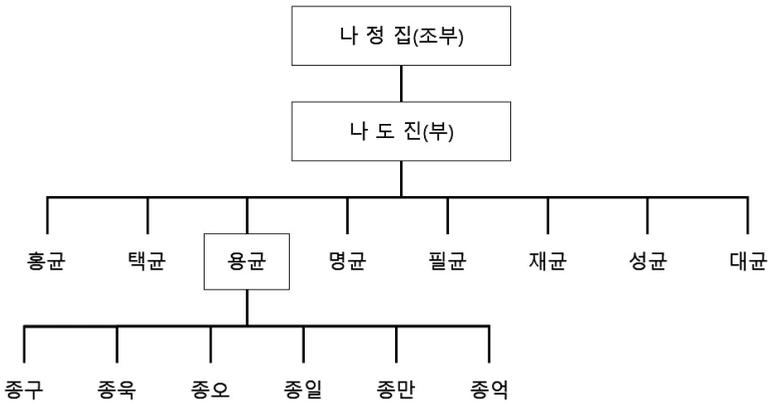
17) 『나주나씨 대동보』 7권, 112쪽. 나명균은 1941년 불온사상 소지자로 일제에게 검거되기도 하였다. 당시 명균이 여의사 김용희와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전쟁 양태에 대해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가 되어 일제는 이들이 불온한 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였다(『思想二關スル情報』 14, 「不穩言動者 檢舉二關スル件」, 1941년 12월 19일). 김용희는 나명균의 부인이다. 다만 김용희의 회고록에는 나명균이 제국주의 일제의 패망에 대한 언급으로 곤혹을 치루었다고 했다(김용희, 『세월은 흘러서, 나의 인생 80년』, 비매품, 1986, 41쪽).

18) 『나주나씨 대동보』 7권 105쪽.

19) 『매일신보』, 1935년 6월 23일, 「운수계에 계명성 상업계에 巨雄」.

20) 『매일신보』, 1935년 1월 10일, 「침묵을 깨트리고 경제계에 진출」. 나재균의 상업계 진출과 주식회사 신영상회 취체역을 맡았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될 정도였다.

도 하였다.²¹⁾ 일곱째 성균(1912~1968), 여덟째 대균은 전북대 법정대를 졸업하였다.²²⁾ 나용균 형제들은 일찍부터 근대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일본에 유학한 후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나재균은 1935년 4월 30일 고향 정읍에서 자본금 10만원의 운수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활약은 정읍을 대표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²³⁾ 나재균은 당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보다는 지역민의 발전이 자신이 운수회사를 설립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²⁴⁾ 나용균의 조부, 부, 형제 및 그의 자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나용균 가계도(『나주나씨 대동보』 참조 작성)

이러한 형제들 속에서 나용균은 어린 시절에는 한학을 공부하였다.²⁵⁾

21) 『매일신보』, 1935년 6월 23일, 「운수계에 계명성, 상업계에 巨雄」.

22) 『나주나씨 대동보』 7권, 112쪽.

23) 『매일신보』, 1935년 6월 23일, 「운수계에 계명성 상업계에 巨雄」.

24) 위와 같음.

25) 『나주나씨 대동보』 2권, 113쪽.

그가 어떠한 집안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명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 전통교육과 현대적 교육을 동시에 이수한 것은 아닌가 한다.²⁶⁾ 나용균은 경술국치 이후 서울로 갔으며,²⁷⁾ 19세 때인 1914년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일본으로 유학하기 전에 고흥 유씨 옥경과 결혼하였다.²⁸⁾ 그의 큰 아들 鍾九가 1914년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나용균의 일생에서 일본 유학은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였으며, 특히 큰 형 흥균이 일본 유학 선배였기 때문에 일본 유학 생활을 적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용균의 일본 유학은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Ⅲ. 일본 유학과 2.8 독립운동

나용균은 일본으로 건너간 지 3년 만에 1917년 10월 와세다 대학 고등예과 정치과에 입학하였으며, 1919년 3월 31일 수료하였다.²⁹⁾ 주지하듯

26) 위와 같음.

27) 그의 이력서에는 서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3의 58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곳에서 거주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28) 첫 부인 유옥경은 1922년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 1932년경 두 번째 부인 밀양 박씨 귀례와 결혼하였다. 나용균은 슬하에 6남 1녀를 두었다. 큰아들 중구는 일본 메이지(明治)대를 졸업하였으며, 둘째 종욱은 미국하버드대 정치철학과를 졸업, 셋째 종오는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졸업, 넷째 종일은 서울대와 영국 캠브리지대 졸업, 다섯째 종만은 시카고치대 졸업, 여섯째 종억은 고려대를 졸업하였다. 나용균은 후대들의 교육에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다.

29) 와세다 대학 교무부장, 「조사결과보고서」, 2023년 1월 12일(교무제A3106), 이 학

그가 다녔던 와세다 대학은 메이지 시대 유명한 관료이자 대륙진출의 외교를 담당했던 오키마 시네노부(大畏重信)가 설립한 대학이다. 그리고 와세다 대학은 사립대학 중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06년부터 식민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였다.³⁰⁾

나용균은 일찍부터 일본 어학연수를 통해서 현지 생활에 적응해갔다. 그가 와세다 대학 고등예과에 재학 중일 때 제국 일본에서는 도쿄 지역 한인 유학생을 철저한 요시찰 감시자로 취급하였다. 일본으로 유학 온 한인 유학생에 대한 감시는 시모노세키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³¹⁾ 유학생들은 도쿄로 들어오기까지 약 10회 정도의 검문을 받기도 했으며, 도쿄에 도착하면 모두 유학생감독부에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했다. 나용균과 비슷한 시기인 1913년에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했던 향산 김도연의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그 때 우리들은 3등 선객이었으므로 3등석에 인도되었다. 3등석은 船腹에서 가까운 아래쪽으로 가서 다다미가 깔려 있었으므로 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눕기도 하였으나 그날을 승객이 많아서 자리가 대단히 비좁았다. 우리들은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배가 빨리 출항하기를 고대하였다.(중략) 이 러는 사이에 배는 그 이튿날 아침에 하관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중략). 그때 만 하더라도 기차의 속력이 그리 빠르지 못하므로 하관에서 동경까지 약 30시간이나 걸리어 이튿날 밤에야 겨우 동경역에 도착하였다(중략). 나는 동경으로 간 이듬해 錦城중학교 3학년이 입학하였다.³²⁾

적부는 나용균의 아들 나종일 교수가 필자에게 제공한 것이며, 귀한 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 나종일 교수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30) 박양신, 「사학 와세다 인맥을 통해 본 일본, 식민지 조선에서의 식민정책론」, 『아시아문화연구』 19, 2014, 102쪽.

31) 윤소영, 「일제의 요시찰 감시망 속의 제일한인 유학생의 2.8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7, 2018, 42쪽.

나용균의 일본 유학생생활의 경로도 김도연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용균은 도쿄의 한인 유학생 단체였던 조선학회에서 활동하였다. 1917년 나용균이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했을 당시 제일 한인 유학생은 589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456명이 도쿄에 거주하였다.³³⁾ 도쿄에는 조선학회, 재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 학우회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 중 조선학회는 1916년 1월 申翼熙(와세다대), 金良洙(메이지대), 張德秀(와세다대 졸업), 崔斗善(세이소쿠 영어학교) 등에 의해 조직되었는데, 1917년 6월 현재 회원수가 36명이며 회원에는 나용균, 徐椿(도쿄고등사범학교), 張德俊(세이소쿠 영어학교) 등이 있었다. 간사 玄相允, 서기 全榮澤, 회계 金度演으로, 회원 수는 적지만 비교적 뿌리 깊은 배일사상 소지자가 간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 일본 당국에서는 경계가 필요한 단체로 인식하였다.³⁴⁾

나용균은 제일한인유학생 단체인 조선학회에서의 활동을 전개하면서도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1917년³⁵⁾ 와세다대학교 고등

32) 김도연, 『나의 인생백서, 상산회고록』, 글마당, 2004, 60~63쪽.

33) 김인덕,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1999, 5쪽.

34) 警報局保安課, 『在日朝鮮人留學生資料』 1(朝鮮人概況, 1918.5.3.), 綠蔭書房, 2012, 32~34쪽. 재도쿄조선기독교청년회는 1906년에 조직되어 1918년 5월 현재 회원수가 180명이었다. 간부진으로는 회장 피쳐 목사, 부회장 李光洙(와세다대), 서기 宋繼白(와세다대), 간사 白南薰(와세다대 졸업생), 부간사 장덕준(세이소쿠 예비학교)이라고 하였다. 학우회는 趙素昂(鏞殷)이 만든 대한흥학회를 모체로 하여 1912년 安在鴻(와세다대) 등에 의해 조직되어 웅변회, 강연회를 개최하며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단체로 일제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崔八鏞, 金度演(게이오대), 金喆壽(게이오대), 李琮根 등이 회원이었다.

35) 국가보훈부에서 202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희경과 나용균, 황기환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나용균이 1914년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학부에 입학한 것으로 서술하였는데(국가보훈부, 「2023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나용균은 1917년에 와세다대학 고등예과 정치과에 입학하였다(와세다대학 교무부, 「조사결과보고서」, 2023년 1월 12일).

예과에 재학하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편이었다.³⁶⁾ 그의 와세다 대학 학적부 기재상황을 비롯하여 와세다대학의 2023년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먼저 생년월일은 1896년(명치 29) 1월 8일로 되어 있다.³⁷⁾ 대한제국기에는 음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용균의 생년월일은 1895년 11월 25일이었지만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다. 또한 학부와 학과는 고등예정치과/대학부정치경제학과였다. 그리고 고등예과정치과의 입학연월일은 1917년(대정 6) 10월 1일이며, 수료일은 1919년(대정 8) 3월 31일이다.³⁸⁾ 대학부 정치경제학과의 입학일은 1919년 4월 1일이며, 1919년 11월 15일 장기결석으로 제명되었다. 이는 2.8독립운동에 참여한 후 상해로 망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그의 정치과 학업성적은 어떠한가. 1917년과 1919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⁹⁾

〈표〉 1917(대정6년)~1919년 와세다 대학교등예과 정치과 시험성적표

| 연도 | 1917년 | | | 1919년 | | | |
|----|-------|-----|-----|-------|-----|-----|-----|
| | 제1기 | 제2기 | 제3기 | 과목 | 제1기 | 제2기 | 제3기 |
| 국민 | - | 90 | 82 | 국민 | 70 | 90 | 65 |

- 36) 나용균이 와세다대학 정치학과를 선택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는 게이오는 경제, 명치는 법률, 와세다는 정치학과가 유명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김도연, 앞의 책, 64쪽).
- 37) 와세다대학 교무부, 「조사결과보고서」, 2023년 1월 12일.
- 38) 와세다대학 교무부 교육기획과에서 아들 나종일의 요청에 따라 나용균의 학교생활 및 학적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보고로서 1919년 3월 31일에 수료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나용균이 2.8독립운동에 참여한 후 체포되었는데 어떻게 수료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이는 일본에서는 졸업논문(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기를 채우면 ‘수료’라고 하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39) 이 성적표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나용균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단련시키고자 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현재의 학생신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성적표는 나용균의 아들 나종일 교수가 직접 일본 와세다대학에 의뢰에서 수령한 성적표를 필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다만 1918년의 학업성적표는 입수하지 못했다.

| | | | | | | | |
|-----------|-------|-------|-------|-----|-------|-------|-------|
| 한문 | - | - | 78 | 한문 | 60 | 70 | 70 |
| 작문 | - | 70 | 78 | 작문 | 66 | 75 | 75 |
| 회화 | - | 95 | 80 | 회화 | 80 | 90 | 75 |
| 영작문 | - | 80 | 80 | 영작문 | 65 | 60 | 75 |
| ホリチクス(정치) | - | 89 | 95 | 영어1 | 85 | 75 | 75 |
| エノミクス(경제) | - | 89 | 91 | 영어2 | 90 | 85 | 70 |
| 역사 | - | 74 | 80 | 철학 | 75 | 80 | 75 |
| 논리 | - | 50 | 70 | 법통 | 75 | 68 | 78 |
| 심리학 | - | 74 | 80 | 역사 | 80 | 85 | 85 |
| 생물학 | | 75 | 75 | | | | |
| 체조 | | 80 | 89 | | | | |
| 합계 | - | 862 | 978 | 합계 | 746 | 778 | 743 |
| 평균점 | - | 78.36 | 81.50 | 평균점 | 74.60 | 77.80 | 74.30 |
| 성적 | 78.36 | | | 성적 | 76.20 | | |
| | 79.93 | | | | 75.25 | | |
| 비고 | | | 합격 | 비고 | | | 합격 |

* 와세다대학 교육부 교육기획과, 「대정8년 早稻田大學 高等豫科試験成績表 政治科」(2023년 5월 10일).

나용균은 와세다 대학 재학 중에 회화에서 강점을 보였으며, 1학년에는 정치와 경제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신체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체조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역사도 평균 이상의 성적을 올렸다. 다만 1학년 때 논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나용균은 무난히(합격) 학과 성적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나용균의 일본 유학 시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3.1운동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는 2.8독립운동이 그것이었다. 1920년 2월 8일 상하이 大東旅社⁴⁰⁾에서는 독립운동가 30명이 모인 가운데 나용균의 사회로 2.8독립운동 1주년 행사를 진행하였다. 『독립신문』에는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2월 8일 밤 大東旅社 大廳에는 30명 청년의 고창하는 대한독립만세 소리로 진동하다. 지난 해 8일 日本 東京에 류학하던 我學生 八百名이 독립운동의 第一矢로 적국의 首府인 동경 한복판에서 피와 눈물로 독립을 선언하던 일주년 기념일이라 現今 上海에 재류하는 留日學生 일동은 선언 당시 敵京에 在하던 학생 등의 발기로 당일 夜六時에 대동여사 대청에서 기념 축하회를 開하다. 출석원은 先輩後進을 합하여 약 30인 중 부인 한명이라 내빈으로는 愛國婦人會 대표 金元慶 嬢 및 上海民團長 呂運亨氏 等이라 羅容均氏의 사회로 애국가를 합창한 후 孫斗煥君 축사를 述하여 작년 금일 吾人이 十年의 冤恨을 雪키 위하여 일어난 비통한 거사를 기념함은 희열을 禁치 못하는 바라. 그러나 아직 국토를 회복치 못하고 此地에서 이 기념을 행함은 심히 슬픈 일이라 하고 내빈으로 김원경 양은 留日學生 제군이 독립운동의 시작이오 도화선이 되었음을 찬양하노라 우리는 임의 始初한 대사업을 끝내 계속하여 내년의 기념은 국토 내에서 행키를 바란다고 축사하다. 續하여 崔謹愚君의 거사 경과담이 있다.⁴¹⁾

이 행사는 “영원의 혈전을 맹세코 실행함이 우리들의 의무이다”라는

40) 대동여사는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던 곳이다. 1920년 당시 상하이에는 현대식 백화점이었던 영안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이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 안창호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영안백화점에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개장한 대동여사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처럼 대동여사는 상하이 유력인사들의 회합장소이기도 했다. 장개석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陳潔如와 1921년 결혼식을 거행한 장소도 대동여사였다(김광재, 『근현대 상해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8, 140쪽). 뿐만 아니라 나용균은 1921년 임시정부 요인들이 신년하례식을 영안백화점 대동여사 기온각에서 개최할 때 셋째 줄 오른 쪽 세 번째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41) 『독립신문』, 1920년 2월 12일, 「在上海留日韓國學生의 東京宣言一週年紀念祝賀」.

결의문이 낭독되면서 끝났다. 이 기념식에서 사회를 맡았던 나용균과 2.8 독립운동은 어떤 관계였는가.⁴²⁾ 분명한 것은 나용균이 2.8독립운동과 직접 연관이 있었다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거사 '경과담'을 발표한 최근우는 2.8독립선언서 서명자 가운데 한명이었다. 나용균에게 사회를 보게 한 점과 최근우에게 거사 경과담을 발표하게 한 점은 분명, 각자의 역할에 대한 조치였다고 보여 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용균은 일본 동경에서 조직된 유학생 단체인 조선학회에서 활동하였다. 조선학회의 경우 회원 2인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입회가 가능하며, 공식적으로는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 이 학회의 구성원들은 2.8독립운동의 주도세력이었으며, 국내 3.1운동의 유력한 세력이기도 했다.⁴³⁾ 나용균은 2.8 독립운동 당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회고하였다.

1918년 말경에 뜻을 같이 하는 백관수, 김도연, 장덕수, 이광수, 김상덕, 서춘, 송계백, 이종근, 윤창석 등과 같이 밀회하여 1919년 2월 8일에 재일본동경 조선유학생을 동원하여 조선독립선언을 선포기로 모의하고 재정책의 임무를 맡아 자금 조달을 위하여 동기 방학을 이용, 귀국하여 국내 인사 송진우, 김성수, 최린 등에 거사 모의 사실을 사전 연락하여 1919년 3월 1일 3.1독립선언을 촉진시킴에 이바지 하였고,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재일본동경조선인 유학생을 동원 독립선언을 선포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 투옥되었음.⁴⁴⁾

42) 2.8독립운동과 한인 유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인덕, 「일본지 역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윤소영, 「일제의 요시찰 감시망 속의 재일한인유학생의 28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2018.

43) 김인덕, 앞의 글, 1999, 7쪽.

44) 「나용균 공적서」 참조.

위 자료에서 나용균의 2.8 독립운동 관련 사실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18년 말에 백관수 등 유학생 대표들과 독립선언을 선포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며, 둘째 독립선언에 관련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파견되었다는 것, 셋째 2.8독립운동에 직접 참여와 체포였다. 그렇다면 나용균의 기억이 정확한 것인가?

먼저 1918년 말 백관수를 만나 독립선언을 협의하였던 것은 동향출신 이면서 백관수가 동경 조선인 유학생 사이에서도 학생지도자급이었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나용균이 2.8독립운동의 서명자는 아니었을 지라도 적극적 협력자였음을 알 수 있다. 백관수는 2.8독립선언서 서명자이자 독립운동 당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나용균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로 파견되었다는 점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해서는 상산 김도연의 회고록을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거창한 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상당한 자금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早稻田대학 부근 백관수씨 집에서 밤이 깊도록 鳩首회의를 거듭해 오던 우리들 대표단은 우선 독립선언서와 결의문 등을 인쇄하자면 국문 활자와 인쇄기까지도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송계백씨를 본국으로 파견하여 최린, 송진우, 최남선, 현상윤 선생 등을 만나 우리의 거사계획을 알리고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선언문 등을 인쇄할 활자와 자금을 구해 가지고 돌아오게 한 것이다.⁴⁵⁾

당시 국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송계백은 2.8독립운동에 감동한 전북 김제 출신 정노식이 자신의 전답을 매각한 대금 전액을 독립운동 자

45) 김도연, 『나의 인생백서, 상산회고록』, 70~71쪽.

금으로 쾌척했다고 유학생 단체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나용균이 국내로 잠입하여 2.8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는 활동은 향후 자료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2.8독립운동에 나용균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당일 도쿄 YMCA에서 체포 투옥되었다는 사실도 검토가 필요하다. 김도연에 의하면 2월 7일까지 결의문과 선언문 등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대표 11명 가운데 이광수는 나용균과 함께 상해로 망명했다고 했다.⁴⁶⁾ 하지만 나용균이 2.8 독립선언 당시 체포된 50명의 유학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일제 측 자료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국 일본은 백관수, 김도연 등 서명자 11인 가운데 이광수만 제외하고 10명을 재판에 회부하였다.⁴⁷⁾ 이들 10명 이외에 나용균을 비롯한 金河琪, 李壽延, 洪在龍, 張仁煥, 李龜河, 盧圓容, 卞熙瑢, 朴正植, 申文休, 李鳳洙, 金鍾遠, 崔元淳, 崔在宇, 崔德植, 李龍治, 呂運一, 白淳濟, 黃鳳鎭, 金麟奎 등이 체포되었다.⁴⁸⁾ 나용균은 1919년 7월 9일 상해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전라도 의원으로 피선되었기 때문에 체포는 되었을지언정 투옥된 후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하지 않았을 것이다.⁴⁹⁾

46) 김도연, 앞의 책, 72쪽. 다만 김도연의 회고록에서 나용균의 상해 망명시기를 2월 7일로 단정하였다는 점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용균이 이광수와 함께 상해로 망명했다면 임시의정원 초대 의원으로 활동할 개연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5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전라도 의원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5개월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나용균 이전의 임시정부 전라도 의원은 김철, 장병준, 한남수였다(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 25쪽).

47)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3, 「朝鮮留學生ノ獨立運動ニ關スル件」 (1919년 2월 10일, 特高秘乙第56號).

48)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2.8독립선언이 있은 뒤 주모자가 체포되고 막후 연루자도 미행을 당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끼자 그해 4월경 상해로 망명하였다”라고 서술되었지만,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4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임시의정원 I』, 2005, 31쪽.

비록 나용균이 2.8독립운동에서 서명자 11인에 포함되지 않았을 지라도 약 2개월간 敵地 일본 동경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투쟁하였다는 사실은 양식 있는 일본인들까지 제국 일본의 한반도 식민정책이 잘못된 신호였음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⁰⁾ 나용균은 2.8독립운동 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전라도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IV. 상해 망명과 활동

1. 상해망명과 임시의정원 활동

3.1운동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던 2.8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나용균은 새로운 국가 건설(임시정부 수립)을 상해에서 실현하고자 일본에서 상해로 망명하였다.⁵¹⁾ 상해에 망명한 나용균이 어디에 숙소를 정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1922년 제국 일본 외교부에서 파악한 나용균의 거주지는 상해 留日學友俱樂部였다. 유일학우구락부는 1921년에 조직되었으며, 단원은 35명, 직원은 이규홍을 비롯한 7명이었다. 나용균도 이 조직에 가담하였다.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유학생들의 친목 단체였던 유일학우구락부 사무실이 나용균의 거주지였던 吳興里 43번지였던 셈이다.⁵²⁾

50) 김도연, 앞의 책 75쪽.

51) 『나주나씨 대동보』 2권, 113쪽.

52)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在上海地方』 4, 「在上海 鮮人團體 一覽表」(1922년 12월). 다만 이 자료는 吳血里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나용균이 머물렀던 오희리는 1914년에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황포구(옛 노만구) 黃陂南路 300弄 지역이다. 특히 오늘날 상해 신천지와 접해 있다(baidu.www. 참조). 이로 보아 나용균이

그는 상해 망명 이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전라도 의원에 선임되었다. 그런데 나용균이 7월에 상해로 망명하였기 때문에 임시의정원 초대 전라도 의원은 아니었다.⁵³⁾ 즉 1919년 4월 10일 김신부로에 독립임시사무소예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나용균은 참석하지 않았다.⁵⁴⁾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申翼熙·孫貞道·趙素昂·李光洙 4인을 임시의정원법 기초위원으로 선출하여 이들에게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 원칙을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1919년 7월 7일 개최된 제5회 임시의정원 회의에 참석한 인사 가운데 나용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회의는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주요 안건은 범부총장 사면 수리, 국제연맹에 제안할 안건 결의, 국채 발행 문제 등이었다.⁵⁵⁾ 당시 전라도 의원으로는 전남 함평 출신의 김철도 함께 활동하였다.

그런데 1919년 8월 18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인 장안리 민단 사무소에서 개원한 제6회 임시의회에서는 김철이 전라도 의원에서 해임되었으며, 나용균만이 전라도 의원으로 잔류하였다. 또한 나용균은 법제위원회 이사 李圭洪의 대리로 참석하였다.⁵⁶⁾ 8월 30일 법제위원회 회의에서 나용균은 중요한 안건이었던 임시헌법개정안과 임시정부개조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였다. 무엇보다도 임시헌법개정안의 세세한 항목 수정에 나용균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다.⁵⁷⁾ 나용균은 상해에 도착한지 한 달 만에 임시의정원의 주요인물로 각인되었다. 제6회 임시의회에서 국제연

상해 임시정부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3) 나용균 평전에 의하면 1919년 7월 출옥하자마자 바로 중국 상해로 망명길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가 임시의정원에 첫 모습을 보인 것이 7월 7일이었으니, 평전의 기술이 정확한 것 같다(『나주나씨대동보』 권 2, 113쪽).

5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임시의정원 I』, 16쪽.

55)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1쪽.

56)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1~42쪽.

57)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4~45쪽.

맹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위한 특별위원 선거에서도 5인 안에 당선되지 않았지만 최근우와 백남규 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⁵⁸⁾

1919년 9월 11일 나용균은 임시의정원 법제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물론 보결선출이었지만 향후 나용균이 임시의정원에서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임시의정원의 활동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19년 9월 당시 임시의정원이 나용균을 법제위원으로 선출하였던 과정을 『독립신문』을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1일 하오 2시 반 개회 부의장 鄭仁果氏 승석하다. 서기가 院法草案을 낭독한 후 呂運亨氏 동의로 법제위원이 修正謄寫하여 各 議員에게 한부씩 分給한 후에 토의하기로 하다. 법제심사위원 李圭洪, 金甲 兩氏는 他處에 往한 고로 보결하기로 가결되고 장봉氏의 特請으로 의장이 柳璟煥, 羅容均 兩氏를 선출 보결하다. 법정 의원수 부족으로 인하여 시시비비의 논의가 有하다가 安 總長이 登壇하여 의회에 출석치 아니하는 宋世鎬, 黃奉五의 주소가 분명치 못할 뿐더러 遠方에 재한 즉 의원 명부에서 제명을 주장하고 李喜倣氏의 의원의 권리 포기함을 증명하다(중략).⁵⁹⁾

이렇게 법제위원으로 선출된 나용균은 그 이듬해인 1920년 2월 26일, 李春塾, 柳璟煥, 高一淸, 洪濤 등과 함께 정식으로 임시의정원 제1과인 법제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⁶⁰⁾ 나용균은 임시의정원 전라도 의원으로 활

58)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50쪽.

59) 『독립신문』 1919년 9월 16일, 「議場混亂」.

60) 『독립신문』 1920년 3월 1일, 「臨時議政院記事」. 당시 임시의정원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제1과(法制) 李春塾·羅容均·柳璟煥·高一淸·洪濤, 제2과(內務外務) 呂運亨·徐丙浩·金秉祚·金弘敍·李駉珪, 제3과(財務) 金仁全·金泰淵·張鵬·孫永禎·崔謹愚, 제4과(軍務)·王三德·黃學秀·金聲根·安賢卿·吳倫煥, 제5과(交通) 桂奉瑀·金錫璜·黃鎮南·金鍾商·廉鳳根, 제6과(預算決算) 金仁

동하면서 분과에서는 법제위원으로 그 활동영역을 구축하였다. 나용균은 법제위원으로 1920년 3월 15일, 3.1절 즉 독립선언일을 3월 1일, 건국기원일을 4253년전 음력 10월 3일이 양력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서 결정하자고 제의하였고 이것이 결정되었다.⁶¹⁾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독립선언일은 국경절로서 192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기념식을 거행하였다.⁶²⁾

또한 나용균은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은 아니어도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1920년 3월 26일 신흥무관학교 교감 출신 윤기섭이 군사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만주 지역에 군사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도 이전할 것을 건의하였지만 이 의안에 대해서는 조완구, 이규홍과 함께 기권하였다.⁶³⁾ 나용균은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시되면 어김없이 출석하였다. 의원들이 이유없이 결석할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나용균의 근면함은 탁월하였다.⁶⁴⁾

의원들의 불성실 때문에 조직된 정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나용균은 위원장 조완구에게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항을 요청하였다. 그에 대해 조완구는 미국의원단 관련된 환영문과 국무총리 사

全·金泰淵·張鵬·孫永禔·崔謹愚, 제7과(請願懲戒) 玄楯·兪政根·金振宇·李元益·鄭仁果, 제8과(教育實業) 玄楯·兪政根·金振宇·李元益·鄭仁果.

61) 국사편찬위원회, 『임시정부자료집』 2, 68쪽.

62)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절 기념과 3.1운동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2017 참조.

63) 국사편찬위원회, 『임시정부자료집』 2, 78쪽. 이 때 기권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군사기관을 만주에 설치케 하고자 함이니 군무부 전체를 이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4국과 그 외 중요한 기관을 옮기자 함이라, 우리의 거사는 내지에서는 못할지오 외지 동포에 거류하는 곳 가운데 만주가 제일 합당한 지점이다. 둘째 금년 내로 적어도 보병 10개 내지 20개 연대를 편성하여 훈련시키자 함이라. 셋째 금년 내로 전투를 개시하되 적어도 10개 연대를 출동케 하자 함이라 등이었다.

64)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97쪽.

진문제, 각 지방의 행정처 설치 문제 등 여덟 가지를 임시의정원에서 경과 보고하였다.⁶⁵⁾

나용균은 의정원 법제위원으로 1921년 5월 초까지만 활동하였다.⁶⁶⁾ 물론 상해 망명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전라도 의원직도 내려놓았다. 나용균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서의 활동과 함께 상해 한인사회의 대소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먼저 임시정부 요인들의 장례식 장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이후 가장 먼저 순국한 이는 안태국이었다. 그는 1920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순국하였으며, 정안사공묘에 안장되었다. 이때 장례식 사항을 독립신문 부고란에 올렸으며, 友人으로는 이동휘, 이동녕, 박은식, 이시영, 신규식, 손정도, 안창호, 김구였다. 당시 안태국의 장례식은 프랑스조계 경찰의 허가를 받고 진행되었을 정도로 성대하였다.⁶⁷⁾

안태국 다음으로 순국한 임정 요인은 윤현진이었다. 그는 경남 양산 출신으로 일본 유학 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재무 차관을 지냈다. 그는 30세의 이른 나이에 순국하였다. 나용균은 남형우, 이규형, 김철 등과 상의하여 장의를 성대하게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상해 각 단체 및 우인들이 윤현진 순국에 추도의 예를 다하였다.⁶⁸⁾ 나용균이 윤현진 장례를 성대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같은 일본 유학파라는 점도 작용할 수 있었겠지만 임시의정원에서 한명은 전라도 의원, 다른 한명은 경상도 의원으로 활동했던 점도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⁶⁹⁾

나용균은 상해대한교민단(이하 상해교민단)⁷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

65)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96~97쪽.

66) 『독립신문』 1921년 5월 14일, 「회의 제10일」.

67) 김광재, 『근현대 상해 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8, 167~176쪽.

68) 『독립신문』 1921년 10월 5일, 「尹顯振氏의 葬儀」.

69) 『독립신문』 1921년 5월 14일, 「회의 10일」.

70) 상해대한교민단은 1918년 상해고려교민친목회로 출발하여 상해대한인민단, 상해거

하였다. 그는 1921년 9월 상해교민단 의사원을 개선할 때 당선인에 포함되었다. 당시 상해 교민단 의사원은 본구의 한진교, 여운형, 이탁, 김철, 김홍서, 선우훈, 김병조, 옥성빈, 송병조, 서병호, 김만겸, 주현칙, 조상섭, 안창호, 나용균이었으며, 서구에는 이규정, 이필규, 북구에는 김영제였다.⁷¹⁾ 상해교민단의 구성원들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⁷²⁾ 나용균은 상해교민단에서 2년간의 의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23년 10월 새로운 의원으로 위촉되지 않았다. 나용균은 상해 한인 단체인 유일학생회⁷³⁾의 회원으로 쟈마필드 공원에서 운동회를 개최할 때 참석하였다. 당시 참석한 2.8독립운동의 주역은 김상덕, 김철수, 나용균 등이었다.⁷⁴⁾ 또한 1921년 7월 29일 영안공사에서 유일학생회가 간친회가 개최되었으며, 3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 때 나용균은 간친회의 사회를 맡았다.⁷⁵⁾

2.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참가와 국민대표회의 준비

나용균은 이렇듯 임시정부와 상해한인사회에서도 주요인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반증하듯 나용균은 1922년 1월 김규식, 여운형과 함께 모스크

류민단, 상해대한인거류민단을 거쳐 1920년 10월 7일 대한교민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최경민, 「상해대한교민단의 결성과 활동」, 『교육논총』 16, 1996, 245~247쪽).

71)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 在上海地方』 3, 「在上海不逞鮮人ノ動靜」(1921년 10월 19일).

72) 金正明, 『조선민족운동』 2권, 민족주의 운동편, 1921년 9월 19일.

73) 2.8독립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28구락부로 단체명을 개명하였다. 1921년 5월 당시 회원은 43명이었다. 일본에 유학한 인사들이 모인 단체였다.

74) 金正明, 『조선민족운동』 2권, 민족주의 운동편, 1921년 10월 1일.

75)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 在上海地方』 3, 「不逞民團及赤十字總會ニ關スル件」.

바에서 개최된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참석하였다.⁷⁶⁾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는 미국 주도의 워싱턴 체제에 대한 소련의 대응양태였다. 2차례의 회의 연기와 이루크츠크에서 모스크바로 장소를 변경한 것은 당시 국제정세가 매우 민감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⁷⁷⁾ 나용균은 김규식, 여운형, 최창식, 조동호, 현순, 김상덕, 정광호, 장덕진 등 10명과 함께 1921년 11월 27일, 28일 양일에 걸쳐 상해에서 모스크바로 출발하였으며, 이때 여비는 모스크바에서 일부가 전달되었다고 한다.⁷⁸⁾ 당시 상황을 김규식의 눈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 대회에는 소련, 중국, 몽고, 일본, 인도, 자바 대표 등 144명의 병식 대표가 참가하였는데, 한국대표수는 그중 제일 많은 52명이었다. 이동휘, 박진순, 김시현, 장건상, 여운형, 김규식, 나용균, 김원경, 김단야, 박헌영 등을 포함한 한국 측 대표 52명 중 37명은 공산당원으로 등록되었고, 5명은 공산청년 동맹원으로 등록되었다. 그중 25명은 직업을 농업이라 등록하였고, 3명은 노동자라고 하였으며, 18명이 지식이라고 등록하였다. 공산당원이 37명이란 우세를 차지하긴 하였으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당원이 아니라 아마도 주최자인 레닌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⁷⁹⁾

76) 『나주나씨대동보』 권 2, 114쪽. 나용균이 참석했던 ‘원동혁명자대회’는 그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극동근로자대회,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 원동민족대회, 원동민족회의 등 10여 개에 달한다. 이 글에서는 반병률 교수가 정리한 명칭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로 사용하고자 한다(반병률,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와 한국독립운동(1)-대회개최의 배경과 준비」, 『역사문화연구』 65, 2018, 97쪽). 나용균의 이력서에는 1921년에 원동혁명자대회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상해에서 출발한 것을 기점으로 삼은 것 같다.

77)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의 관련 연구는 반병률, 위의 글 참조.

78)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신구문화사, 1974, 77~78쪽.

79) 이정식, 위의 책, 77쪽. 나용균은 ‘자유시 참변’에 대한 한국독립운동세력간의 알력 즉 고려공산당 안병찬 및 독립만주국사령관 문창범과의 하일빈 한국독립군과의

물론 당시 모스크바에서 트로츠키를 비롯한 소련 측 인사들은 한국의 처지에 대한 동정과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보였다. 김규식과 여운형이 한국 측 대표로 활동하였으며, 나용균도 이 대회에서 한국독립운동에 희망을 가졌지만, 김규식과 마찬가지로 소련 정부의 자국 이익의 관점만을 확인하였을 것이다.⁸⁰⁾ 나용균은 여운형, 김규식, 최창식, 김원경, 권애라와 북경까지 동행한 후 임원근 등과 1922년 3월 16일 상해에 도착하였다.⁸¹⁾ 나용균은 원동민족대회에 이팔구락부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공산주의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무당파였다. 그런데 임경석 교수의 지적처럼 상해파 고려공산당원과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이르쿠츠크파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당했다는 점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확대해석하여 나용균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원들과 동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과 입장을 같이하였다는 견해도 존재한다.⁸²⁾ 분명한 것은 소련에게서 수령한 자금을 한형권이 나용균을 통해 주비회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다.⁸³⁾

나용균은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참석한 이후 북경과 상해를 왕래하면서 내분에 싸인 독립운동 진영의 단합에 부심하였다. 당시 상해임시

알력의 표출이었으며, 이르쿠츠크파와 고려공산당과의 알력 관계로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이 발행하였다고 연설하였다(『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鮮人ト過激派』 2, 『共產黨員ノ內訌ニ關スル件』(1922년 3월 23일).

80) 이정식, 위의 책, 89쪽. 나용균은 한국의 독립도 공산혁명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문에 서명을 강요당하였으며, 끝내 거절하였다고 했다(『나주나씨대동보』 권 2, 114쪽).

8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鮮人ト過激派』 2, 『鮮人共產黨首領呂運亨 歸滬ノ件』(1922년 3월 18일).

82) 조철형, 「국민대표회 개최과정과 참가대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43쪽.

83) 심지어 나용균을 한형권의 부하로 파악한 일제 문서도 존재하였다. 이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병렬적 관계에서 독립운동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이 문제는 좀더 새로운 자료의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정부를 둘러싼 독립운동 세력은 지역, 인물별 파벌로 얼룩져 있었다. 도산 안창호는 국민대표회를 소집하여 당시 임시정부의 현상을 타개하고 새로운 독립운동세력의 재정비를 계획하였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재정운동이었다.따라서 안창호는 준비회를 독려하여 완성도 있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⁸⁴⁾

한편 나용균은 1921년 5월 12일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 기성회를 조직할 때 이미 위원 후보자 20인으로 여운형, 이탁, 안창호, 서병호, 김규식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⁸⁵⁾ 1922년 5월 나용균은 임시정부의 개조를 통하여 보다 성숙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국민대표회 준비위원회에 서기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국민대표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선언서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於是乎 원근이 상응하고 중외가 일치하여 이구동성으로 국민대표회를 주창하였는데 작년 이래 미, 멕시코, 하와이, 上海, 北京, 壘島 각지에서 국민대표회기성회가 점차 성립되고 기타 개인 혹은 단체로서 국민대표회를 찬성 또는 촉진하는 信息이 逐日 聚至하는 것은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러면 국민대표회의 실현은 抑遏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라. 이에 본 준비회는 시세의 추향과 민중의 요구에 응하여 과거의 모든 분규, 착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본래의 완전 확실한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다시 통일적, 조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대 안건 하에 국민대표회 소집 사항도 준비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성립된 것이다.

84)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在上海地方』4, 「國民代表會의 經過ニ關スル件」(1922년 5월 23일).

85) 『독립신문』, 1921년 5월 21일, 「國民代表會促進의 第二回大演說會」. 국민대표회 준비위원은 나용균을 비롯하여 呂運亨, 李鐸, 安昌浩, 徐丙浩, 金秉祚, 金奎植, 南亨祐, 宋秉祚, 崔東旻, 尹顯振, 李英熙, 都寅權, 金萬謙, 金澈, 梁瀨, 元世勳, 李圭洪, 韓鎮教, 李元益 등이었다.

그리고 본 준비회의 성립은 이미 1년에 가까우나 아직 대표회를 소집할 수 없었던 것을 제반 四圍事情의 불허때문인 것이다. 실로 유감천만이나 이제 는 시기가 이미 농속하고 사세가 이 이상 지체하는 것을 용서치 않는다. 급속 한 기간 내에 대표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들이 국민대표회를 준비하 는 주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中外에 선포하며 이천만 동포의 同聲相應을 구하 는 바이다. 기원 4255년(民國 4年) 5월 10日 國民代表會 籌備委員會 委員長 南亨祐, 會計 金澈, 會計 元世勳, 書記 羅容均, 書記 徐丙浩⁸⁶⁾

또한 나용균은 1922년 6월 24일, 임시의정원 회의장에서 당시 독립운 동세력의 재편과 새로운 방향성을 지향하기 위해 국민대표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것을 표명하였다. 특히 새롭고 합리적인 정부의 조직을 위해 국민 대표회의 성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⁸⁷⁾

마침내 1923년 1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으 며,⁸⁸⁾ 나용균은 참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개조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나용균은 창조파가 주축이 되었던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 같다.⁸⁹⁾ 국민대표회주비위원회 준비위원 12인 가운데 나용균, 김위택, 남공선, 남형우를 제외한 8인은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⁹⁰⁾ 그럼에도 국민대표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한형권이 가져온 모스

86)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第2卷 民族主義運動篇, 1922년 5월 10일. 이 자료의 원본과 번역본은 약간 차이가 있다.

87)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在上海地方』 4, 「批判演說會 開催ニ關スル件」 (1922년 6월 25일).

88)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조철행, 「국민대표회 전후 민족운동 쇠 고기관 조직론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을 들 수 있다.

89) 반병률, 「국민대표회의의 참가자 자료 해제」 참조.

90)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在上海地方』 4, 「上海ニ於ケル國民代表會ノ經過狀況」, 1922년 9월 28일.

크바 자금이 주비회 경비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⁹¹⁾ 그런데 국민대표회의 주비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나용균은 서기였지만 회계는 김철과 원세훈이었다. 그렇다면 나용균은 왜 주비회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을까? 그 정확한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김철과 원세훈이 원동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나용균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 자금이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한다.

주비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대표회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식자격을 인정받은 대표는 125명이었다. 어찌되었건 국민대표회의 주비회 자금은 나용균을 통해 지급되었다. 첫 번째 경비는 원동혁명자대표단회의에 참가했던 나용균을 경유하여 주비회에 36,000원이 전달되었다. 이는 한형권이 나용균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²⁾ 다만 제국 일본 외무성 문서에는 나용균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정보를 적시하면서 이 정보의 진위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주 애매한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⁹³⁾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나용균을 둘러싸고 생산되었다. 예컨대 나용균이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모금된 자금은 2만원이었으며, 1만원은 나용균이 착복하였다는 보고 등이었다.⁹⁴⁾ 제국주의 일본에서 나용균의 활동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독립운동 세력 내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다. 따라서 자금관리와 지금까지 담당했던 나용균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사는 제국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강조되어야 할 보안사항이었을 것이다.

91) 조철행, 앞의 글, 2009, 61쪽.

92)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在上海地方』4, 「上海ニ於ケル國民代表會ノ經過狀況」, 1922년 9월 28일.

93) 위와 같음.

94) 위와 같음.

V. 영국 유학과 귀국 후 활동

나용균은 국민대표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그 회의가 큰 결실 없이 종료되자, 도산 안창호와 협의하여 영국유학을 결정하였다.⁹⁵⁾ 『나주나씨대동보』에는 1923년에 출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용균이 영국 런던을 향해 떠났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1923년 7월 상해에서 증한호조사 기념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나용균이 한국 측 회원에 포함되어 있었다⁹⁶⁾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 런던을 향해 떠난 시기는 그 이후라고 여겨진다.

1923년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정세를 더욱 알기 위하여 상해에서 배를 타고 영국 런던에 도착하였다. 당시 나용균과 같이 한인들은 상해에서 유럽으로 도항하거나 때로는 중국에 귀화하여 중국인으로서 중국 관헌에게 여권을 받아서 도항하기도 했다. 이 때 중국 귀화증개업자에게 20원~30원의 수수료를 주면 귀화증을 받아서 도항하였다. 물론 나용균이 귀화증을 받아서 유럽으로 유학길을 갔다는 자료는 없다. 어찌되었건 나용균이 제국 일본의 감시를 피해 상해에서 영국으로 간 것은 확실하다.⁹⁷⁾

영국 런던에 도착한 나용균은 처음 옥스퍼드대학교에 들어갔으나 학비가 너무 비싸 런던대학교로 옮겼다. 당시 런던대학교에는 라스키 교수 등 정치, 경제 분야에 탁월한 교수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⁹⁸⁾

95) 『나주나씨대동보』 2권, 114쪽.

96)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在上海地方』 5, 「中韓國民互助社 總社規則二關係ル件」, 1923년 8월 10일.

9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歐米』 8, 「鮮人 朴容萬 來布並計劃二關係ル件」(1925년 9월 30일).

98) 『나주나씨대동보』 권 2, 115쪽.

한편 1925년 7월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재구요주의조선인명부」에서 나용균을 “성정이 온건하고 배일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역임했다”라고 표기하였다.⁹⁹⁾ 이 정보 기록에 나용균의 거주지는 영국 런던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생년월일을 1895년 6월 25일로 기재하였는데, 어떤 근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류이다. 제국주의 일본은 나용균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비롯한 유력 조선인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이들의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¹⁰⁰⁾ 이처럼 나용균은 영국에 거주하면서도 제국 일본의 감시를 받았다.

한편 나용균이 영국에 체류하면서도 임시정부와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맺은 것 같다. 황해도 출신으로 상해지역 한인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였던 張德震이 1924년 8월 18일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당하여 같은 달 26일 순국하였다. 당시 장덕진은 여운형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협의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던 중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장덕진의 순국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때 나용균에게도 장덕진의 장례소식이 전달되었다.¹⁰¹⁾

나용균은 6년간의 영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1929년 귀국하였다.¹⁰²⁾ 귀

99)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歐米』 8, 「在歐朝鮮人ノ概況ニ關スル件」 (1925년 8월 8일). 부록에 기록된 「재구요주의조선인명부」에는 나용균 이외에 최근우, 김재은, 백성욱, 박석운, 윤보선 3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의 또 다른 명부의 하나인 유럽지역 조선인 유학생들 가운데, 이극로 및 신성모는 일반 유학생으로 분류하여 기재하였다. 이 문서의 발신자인 三矢宮松은 그 해 만주지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감시, 체포하기 위해 중국 동북 군벌과 이른바 「삼시협정」을 맺은 주인공이기도 하다.

10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歐米』 8, 「在歐朝鮮人ノ概況ニ關スル件」 (1925년 8월 8일).

101)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在上海地方』 5, 「亡張德震ノ死亡通知狀 發送先ニ關スル件」(1924년 9월 26일).

국 후 나용균은 전남 함평지역 간석지 사업에 전념하였다.¹⁰³⁾ 또한 나용균은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활동에도 전념하였는데 이는 그가 추진한 자력공동체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실력양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1천원 등의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¹⁰⁴⁾ 그러던 가운데 1935년 10월 31일 정읍군 영월면 운학동 자택에서 內親(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¹⁰⁵⁾ 해방 때까지 조선총독부의 감시를 받았던 나용균은 함평 자력공동체 활동에 주력하면서 일체 그들과 접촉을 단절하였다.

VI. 맺음말

백봉 나용균은 구한말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정치활동을 역동적으로 실행한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나용균의 생애 가운데 해방까지의 시기를 범주로 다루었다. 그의 일생 가운데 독립운동 시기는 한국사에서 가장 암울한 때이기도 하다. 나용균은 시대적 상황을 온몸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실천적 지식인기도 했다. 나용균의 유년시절 및 일본 유학전의 활동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 나도진의 행적을 통해 그의 시대 인식과 민족적 정체성 형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었다.

102) 「나용균 이력서」 참조. 나용균의 영국 유학 당시 자료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 수집하지 못했다. 필자의 게으름이 추동한 결과이다. 향후 보완하겠다.

103) 오늘날 함평군에서는 지자체 행사로서 '백봉 글짓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간석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후일 좀더 자료를 보완하여 별도로 작성하고자 한다.

104) 『조선중앙일보』, 1934년 12월 16일, 「보전기념사업 전 조선 성원 점차 백열화 거액의 기부환지」.

105) 『매일신보』 1935년 11월 2일, 「人事」.

먼저 나용균의 가계의 특징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부친 나도진은 정읍 영월면 인근의 재력가이면서 실력자였고, 그러한 가문과 자신의 역량을 공동체의 공생과 공존을 위해 사용하였다. 영월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도진 기념비를 건립하여 후세에게 공덕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좋은 예이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다. 특히 민족적 위기 속에서 나용균은 일본 유학 당시 2.8독립선언에 참여하여 암울했던 식민지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던 지식인의 표상이었다.

2.8 독립 운동 이후 나용균은 일본 당국의 체포와 구금을 당하였으며, 자신의 현실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그는 임시의정원 전라도 의원과 법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국경절에 관한 법을 제의하여 관철시켰으며, 그것은 오늘날 3.1절과 개천절의 원형이었다. 또한 나용균은 임시의정원 등원 문제도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하였다. 즉 임시의정원 출석 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고 불성실한 의원들은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논리를 설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원동노력자대회에 대표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상해지역에 망명한 수많은 청년들이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나용균은 임시의정원 내에서도 아주 젊은 축에 속했다. 원동대회를 마친 그에게 또 하나의 숙제는 상해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앞날에 대한 고민이었다. 1923년 1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준비위원 11명 가운데 나용균이 선발되어 활동하였다. 나용균은 국민대표회의의 참가 비용을 관리하는 임무도 담당하였다.

나용균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큰 성과없이 돌아가고 자신의 역할도 재점검할 겸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향해 유럽으로 갔다. 그는 영국 런던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1929년 귀국 후 향리에서 자력갱생

의 목표로 간척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은 일제의 감시 대상이었으며, 그의 동생 나명균은 사석에서 태평양전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사실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렇게 조선총독부에서는 나용균 일가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나용균은 일제와는 어떤 타협이나 협력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정읍과 가까운 함평의 간척지를 개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즉 민중의 자력 생활을 통해 그들을 자각하고 보다 부강하게 만들고자 함이었다.

그가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나아가 몸소 저항했던 활동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도 그 외연은 아주 넓다고 할 수 있다. 가진 자들은 변절하기도 쉽다. 하지만 나용균은 제국 일본의 회유에도 해방 때까지 민족적 자존감을 유지하였다. 오늘날 후대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23.11.06. 투고 / 2023.12.12. 심사완료 / 2023.12.13. 게재확정)

[Abstract]

**The Life and National Movement of Independence Activist
Na Yong-gyun**

Kim, Jooyong

Baekbong Na Yong-kyun's life is in line with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Born in Jeongeup, Jeollabuk-do, he received traditional education as a child, and studied in Japan in the mid-1910s, going through a period of establishing a new environment of modern education and national identity. During his time studying in Japan,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2·8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to restore the national community and independence. Imperial Japanese police arrested and imprisoned.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he fled to Shanghai in July 1919. Na Yong-kyun actively engaged in legislative activities while serving as a member of the Provision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expand the extens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 also participated in the Congress of the Communist and Revolutionary Organizations of the Far East held in Moscow. Furthermore,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f the National Congress organized to present a new strategy and direction fo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 left behind his activities in Shanghai and went on to study in England. After entering the University of London in 1923, he studied international politics until he returned to Korea in 1929. After

returning home, he tried to improve the self-living of farmers in Korea to overcome the colonial reality. He attempted to change his living conditions by reclaiming reclaimed land in Hampyeong, Jeollanam-do, and kept his national self-esteem without being coaxed while under Japanese surveillance until liberation.

□ Keyword

Na Yong-kyun, 2.8 Independence Movement, Provisional Counci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gress of the Communist and Revolutionary Organizations of the Far East, Self-Life

[참고문헌]

- 『나주나씨 대동보』 2권, 7권.
-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 在内地』 3.
- 『不逞團關係雜件-鮮人ノ部-在上海地方』 4.
- 와세다 대학 교무부장, 「조사결과보고서」, 2023년 1월 12일(교무제A3106).
- 와세다대학 교육부 교육기획과, 「대정8년 早稻田大學 高等豫科試驗成績
表 政治科」(2023년 5월 10일).
- 警報局保安課, 『在日朝鮮人留學生資料』 1(朝鮮人概況, 1918.5.3.), 綠蔭
書房, 2012.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 - 임시의정원 I, 2005.
- 김광재, 『근현대 상해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8.
- 김도연, 『나의 인생백서, 상산회고록』, 글마당, 2004.
-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신구문화사, 1974.
- 문화재청, 『정읍 나용균 생가 및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10.
- 전라북도, 『전북학연구』 3, 1997.
- 김영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선양활동과 순국선열기념일 제정」, 『열린정
신 인문학연구』 19-1, 2018.
- 김인덕,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1999.
- 김인덕, 「일본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 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 박양신, 「사학 와세다 인맥을 통해 본 일본, 식민지 조선에서의 식민정책론」,
『아시아문화연구』 19, 2014.
- 윤대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1절 기념과 3.1운동 인식」, 『한국독립운동

사연구』 57, 2017.

윤소영, 「일제의 요시찰 감시망 속의 재일한인 유학생의 2.8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7, 2018.

조철행, 「국민대표회 개최과정과 참가대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1, 2009.

